



2009년 하반기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세계지역연구센터

I. 선진 경제권	II. 신흥시장국	III. 개도국 경제권
1. 미국	1. 중국	1. 동남아
2. 일본	2. 인도	2. 중남미
3. EU	3. 러시아	3. 중동
		4. 중앙아시아

주요 내용

- ▶ 2008년 하반기 이래 가시화된 전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현재 각국에서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경기후퇴가 완만해지고 있으며, 신흥시장 및 개도국 경제는 저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투자 부문의 회생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고용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음. 민간소비의 경우 국가마다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 2009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각국의 경기부양정책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최악의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 선진 경제권은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경기후퇴가 진정되고 4/4분기에는 회복세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신흥시장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빨리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임. 개도국 경제권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지만 선진 경제권의 여전한 경기 부진으로 지역별 편차의 확대 및 일시적 경기후퇴의 가능성이 있음.
- 미약한 경기회복세는 보통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판단되므로,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수출의 자생적 회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선진 경제권: 경기 후퇴 감속과 미약한 회복세 전망
- 2009년 하반기 미국경제는 2분기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어 2009년 전체적으로 -2.5~-3%의 경제성장을 시현할 전망이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주택시장 부진, 금융위기 잔존, 고용악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일본경제는 2010년에야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은 엔고에 따른 수출 급감과 내수부진으로 여타

선진 경제권에 비해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 양상을 보임.

- 하반기 EU 및 유로존 경기지표도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하락세는 완만해질 것으로 보임.
- ▶ 신흥시장권: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회복세
- 하반기 중국경제는 추가 경기부양책과 투자 확대 등으로 다른 경제권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단, 수출 및 소비의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인도는 중국과 함께 가장 빨리 경기회복세를 가시화하여 2009년 6%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가하락으로 큰 경기후퇴를 겪은 러시아 경제는 2009년 하반기 경기침체가 완만해질 것이나, 여전히 마이너스대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 개도국 경제권 불안정한 경기회복세와 국가간 편차 확대
- 동남아 및 중남미 경제는 2009년 하반기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나, 국가별 편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싱가포르와 태국, 멕시코 등이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거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칠레 등이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될 전망이다.
- 유가의 상승 안정화에 힘입어 중동 경제는 하반기 플러스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심화된 중앙아시아의 경우 지역 내 최대경제권인 카자흐스탄이 하반기에 경기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됨.

I. 선진 경제권

1. 미국

가. 경제위기 진행 현황

■ 미국, 2009년 1분기 경제성장률 전기대비 연율 -5.5% 기록

- 2009년 1분기 미국경제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설비투자 및 재고 감소 등에 기인하여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

- 부진한 1분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지출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1.4%)으로 반전

표 1.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구 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연중	1/4
GDP	0.9	2.8	-0.5	-6.3	1.1	-5.5
개인소비지출	0.9	1.2	-3.8	-4.3	0.2	1.4
총 민간투자	-5.8	-11.5	0.4	-23.0	-6.7	-48.9
기업투자	2.4	2.5	-1.7	-21.7	1.6	-37.3
주택투자	-25.1	-13.3	-16	-22.8	-20.8	-38.8
수출	5.1	12.3	3.0	-23.6	6.2	-30.6
수입	-0.8	-7.3	-3.5	-17.5	-3.5	-36.4

자료: 미국 상무부(2009. 6).

■ 미국 수입수요 급감으로 인한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증가 및 경상수지적자 규모 축소

- 수입수요가 급감한 원인으로 원유가격 하락, 전반적인 소비 억제 및 저축 증가 등의 소비심리 위축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효과 발생

- 이에 따라 2009년 1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전 분기보다 534억 달러 대폭 축소된 -1,015억 달러(GDP 대비 -0.7%)를 기록

■ 경기위축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인해 전반적인 물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

- 경기침체에 따라 물가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및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전반적인 주택시장 위축 속, 주택경기 바닥론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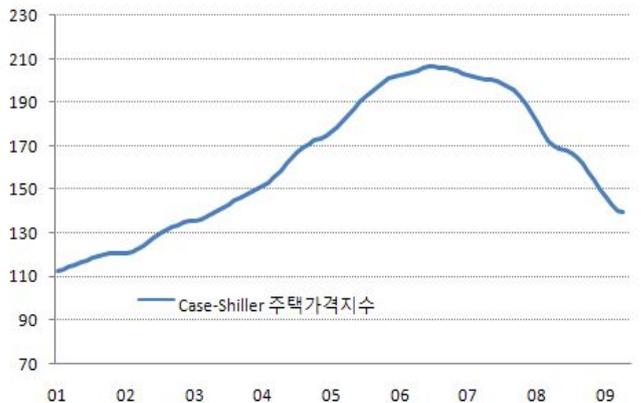
- 美 20대 도시기준 3월 S&P 케이스-셸러(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는 28개월 연속 하락한 139.18(전년동월대비 18.1% 감소)을 기록

- 2009년 5월 신규 및 기존주택 판매는 각각 연 34.2만 채(전월대비 0.6% 감소), 연 477만 채(전월대비 2.4% 증가)를 기록

그림 1. 신규 및 기존 주택판매지수



그림 2. 케이스-셸러 주택가격지수



자료: 전미부동산협회, Case-Shiller(2009. 7).

■ 압류 주택의 매물 증가로 주택재고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매물압박이 주택가격을 하락시켜 모기지 연체를 가중시키는 악순환 반복

- 2009년 1분기 현재 전체 담보주택의 압류 비율은 2006년 말보다 약 3배 이상 상승한 3.85%를 나타냄.

○ 서브프라임 담보주택의 압류 비율은 2006년 말 4.53%에서 2009년 1/4분기 14.34%를 기록하였으며, 동 기간 중 프라임 담보주택도 0.50%에서 2.49%로 상승

표 2. 주택차입 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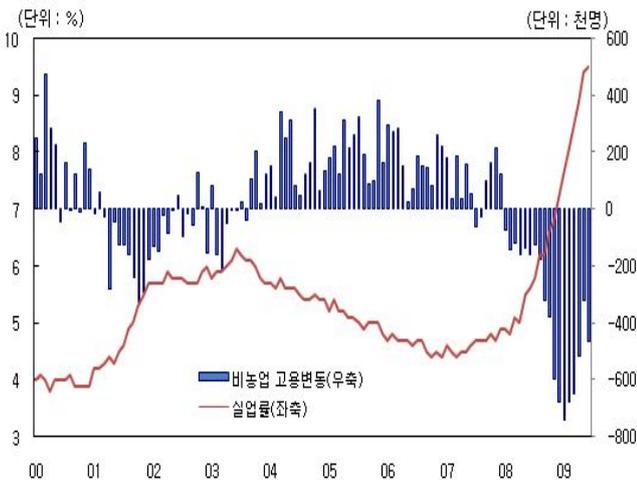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4
전체 주택	1.19	2.04	3.30	3.85
프라임	0.50	0.96	1.88	2.49
서브프라임	4.53	8.65	13.71	14.34

주: 각 연도 기말 기준.
 자료: Bloomberg, Mortgage Bankers Association(2009. 7).

■ 2008년 하반기 이후 고용시장 위축 지속

- 2009년 6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가 전월대비 46.7만 명 감소(18개월 연속 감소)하여 2007년 12월 이후 약 720만 명 고용 감소
- 6월 실업률이 1983년 8월 이후 최고치인 9.5%로 상승세를 나타내 고용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나, 급격한 고용 감소 추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그림 3. 비농업부문 고용변동 및 실업률 추이



자료: 미국 노동부(2009. 7).

■ 반면 경기선행지표인 소비자신뢰지수 및 ISM 제조업지수는 전반적으로 개선 중

- 6월 로이터/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도 전월(68.7)보다 2.1 포인트 상승한 70.8을 기록하는 등 4개월 연속 상승
- 6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 또한 전월(42.8)보다 2 포인트 상승한 44.8을 기록하여 6개월 연속 상승

나.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

■ 주택시장, 2009년 하반기에는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

- 주택 재고부담 및 차입물량 출회지속을 감안할 때 2009년 하반기에는 주택가격 안정을 통한 금융불안 해소 및 경기회복 기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

■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감소할 전망

- 2009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수출 위축에도 불구하고 고 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 전망
-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2006년 GDP 대비 -6%에서, 2008년 -4.7%, 2009년 -2.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3. 미국 2009년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전망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품수출	1,023	1,148	1,291	989
상품수입	1,861	1,968	2,112	1,510
무역수지	-838	-819	-821	-521
경상수지	-788 (-6.0%)	-731 (-5.3%)	-673 (-4.7%)	-409 (-2.9%)

주: () 안은 GDP 대비 비중.
 자료: Global Insight(2009. 6).

■ 2009년 미국경제 -2.5 ~ -3% 성장, 2010년 1~1.5% 저성장 전망

- 7,872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 금융구제안, FRB의 양적완화 조치 등이 2009년 하반기부터 효과를 점진적으로 발휘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주택시장 부진, 금융위기 잔존, 고용악화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연구진

이준규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junkyul@kiep.go.kr, Tel: 3460-1128)
 고희채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hcko@kiep.go.kr, Tel: 3460-1086)

2. 일본

가. 경제위기 진행 현황

■ 2008년 9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은 전후(戰後) 최악의 경기침체 국면

- 일본의 2009년 1/4분기 실질 GDP 증가율(전기대비) -3.8%는 미국(-1.6%)과 EU(-2.5%)보다 낮은데다,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함.

○ 주요국의 실질 GDP 증가율 추이(2008년 1분기부터 2009년 1분기까지)

- ▶ 미국: 0.2% → 0.7% → -0.1% → -1.6% → -1.6%
- ▶ EU: 0.5% → -0.1% → -0.3% → -1.5% → -2.5%

표 4. 일본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구분	2007년	2008년 (단위: 전기대비 %)						2009년 1/4
		전체	1/4	2/4	3/4	4/4		
GDP	1.8	-3.5	0.8	-0.9	-0.6	-3.8	-3.8	
소비	0.9	-0.5	1.4	-1.0	0.1	-0.8	-1.1	
설비투자	2.1	-10.3	1.7	-2.9	-4.4	-6.7	-8.9	
공공투자	-6.3	-4.5	-5.1	-0.8	1.0	-0.1	0.1	
수출	9.3	-10.2	2.4	-0.8	1.0	-14.7	-26.0	
수입	1.7	-3.5	2.4	-4.2	1.5	3.1	-15.0	

주: 회계연도(4월~익년도 3월) 기준의 실질GDP 증가율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일본 内閣府(2009. 6).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진행된 엔고는 수출은 물론 설비투자 급감을 초래하였고, 특히 2009년 들어서 내수부진이 이에 가세하여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대폭적인 고용 조정과 디플레이션 압력이 뒤따르고 있음.

○ 엔/달러 환율추이: 2008년 7월 말 108.24 → 2008년 9월 말 105.09 → 2008년 12월 말 90.21 → 2009년 1월 말 89.55 → 2009년 5월 말 96.48 → 2009년 6월 말 96.01

○ 2009년 3월 주요 품목의 수출 동향(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동차 -70.6%, 일반기계 -47.1%, 전기기계 -43.9%

- 일본 상장기업의 2009년 3월기 당기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로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이 현실화됨.

○ 2009년 3월기 일본 상장 제조업체(945개)의 주요 경영실적: 매출액 292조 엔(전기대비 -10%), 경상이익 3조 엔(전기대비 -82.8%), 당기순이익 -1.8조 엔(적자화)

■ 일본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과 긴급경제안정대책을 잇따라 발표

-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2차례에 걸친 정책금리 인하(0.5%→0.1%), 국채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1.4조 엔), 국채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확대(21조 엔),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20조 엔), 지방중소기업 자금지원(10조 엔) 등이 대표적

- 긴급경제안정대책은 주로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중소기업 지원, 지방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추진되었고, 그 규모(24.4조 엔)는 2000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추진된 경제대책 규모의 약 3배에 달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정부의 긴급재정정책: 생활대책(2008년 10월) 5조 엔, 생활방어긴급대책(2008년 12월) 4조 엔, 경제위기대책(2009년 4월) 15.4조 엔

나. 2009년 경제 전망

■ 일본경제는 2010년 1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대체적으로 -6% 내외로 주요 국가·지역 가운데 최악이라는 데 일치

표 5. 주요 국·지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국가	2009년 (단위: %)			
	IMF (2009. 4월)	세계은행 (2009. 3월)	OECD (2009. 6월)	Global Insight (2009. 7월)
일본	-6.2	-5.3	-6.8	-6.8
미국	-2.8	-2.4	-2.8	-3.0
EU	-4.2	-2.7	-4.8	-4.6

- 그러나 일본 경제연구소(日本総合研究所 등 12개 기관)들은 상기 국제기관보다 낙관적으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3.8%로 예측(12개 기관 평균치)하고 내년에는 1.2%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

■ 일본경제의 '아킬레스건' 이라 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에 대해 OECD는 물론 일본 경제연구소들도 회복 난망으로 전망

- OECD는 일본의 2009년도 인플레이션율을 -1.3%로 전망하고, 일본 국내 경제연구소 12개 기관도 평균 -1.3%(2010년 -0.6%)로 전망
- 위와 같은 전망은 최근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해 본원통화가 급증(2009. 3월 전월대비 10% 증가)하였는데도 내수부진과 수입상품가격의 하락이 소비자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음에서 비롯됨.
- 일본은행은 CPI 상승률이 2009년 -1.5%, 2010년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일본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 불안 문제는 정부의 긴급경제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전망

- OECD는 일본의 2009년 말 실업률을 4.9%(2010년 말 5.6%)로 전망하고 있고 일본경제연구소 역시 5.0%(2010년 1분기 말 5.2%)로 전망

표 6.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구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실질GDP (전년동기대비)	-7.7	-6.5	-2.2	2.3
민간소비 (전기대비)	0.8	-0.4	0.3	0.3
기업설비투자 (전기대비)	-1.7	0.5	-1.6	-1.8
수출 (전기대비)	3.9	3.2	1.5	1.2
수입 (전기대비)	-2.8	1.6	0.5	0.4
엔/달러 환율	97.5	98.1	98.3	98.8
Nikkei 주가	9,025	9,519	9,372	9,523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1.2	-2.2	-1.5	-1.1
실업률(%)	4.9	4.9	5.0	5.2

자료: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2009. 5).

■ 하반기 이후에도 내수감소와 수출감소가 예상되어 정부의 공공투자 효과가 실질 성장률을 좌우할 전망

- 최근 민간소비는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임금 및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공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수규모는 축소될 전망

표 7. 일본의 내수 전망

(단위: 전기대비 증감률, %)

구분	2008년(실적치)	2009년	2010년
민간소비	0.6	-1.7	0.1
정부소비	0.8	2.6	3.0
공공투자	-6.9	12.2	-2.4
총 내수	-0.7	-3.4	0.7

자료: OECD Economic Outlook(2009. 6).

- 수출 역시 엔화 강세, 다른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국의 수요 감소 등으로 사상 최악의 예측이 불가피
- 그럼에도 일본경제연구소의 경상수지 전망치(명목 GDP 대비)는 2009년 1분기 1.4% → 2분기 2.4% → 3분기 3.0% → 4분기 2.4%로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달러화 약세 기조가 금년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엔고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2009년 엔/달러 환율은 93엔(Global Insight: 2분기 이후 평균치)~96.6엔(일본 경제연구소 12개 기관의 평균치: 연평균)으로 추이할 전망이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9년도 2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을 좌우할 변수는 공공투자나 정부소비 등과 같은 공공지출이라는 데 이견이 없음.
- 일본경제연구소는 일본정부의 14조 엔에 달하는 2009년도 추경예산이 실질 GDP를 1.0%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

다. 한·일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한·일 양국간 무역규모가 양국의 내수 침체로 인해 축소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무역확대책이 절실함.

- 2008년 11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엔고 추세에 따른 대일 수출증가 기대가 일본의 극심한 내수침체로 무산되는 추이

- 원/100엔 환율 추이: 2007년 말 828.6원 → 2008년 11월 말 1,553.7원 → 2009년 4월 말 1,382.9원 → 2009년 6월 말 1,336.9원
- 최근 우리의 대일 수출 현황(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9년 1월 -34.4% → 2월 -31.8% → 3월 -35.4% → 4월 -32.1% → 5월 -34.9%
- 한편 정부는 금년 초 발표한 '대일역조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일 무역역조' 고착화를 탈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특히 그간 정부의 부품소재 육성정책은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부품소재산업의 전문성·다양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미흡하였다는 지적에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
-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 추이: 2003년 190억 달러 → 2005년 243억 달러 → 2008년 327억 달러
-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일본 내에서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일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상호 협력안건을 중심으로 FTA 협상을 대비할 필요
- 일본의 FTA 정책은 주로 ASEAN과의 양자간 FTA에 주력해왔고,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은 2004년 11월 중단 상태
- 일본은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호주와의 FTA 협상을 전개하였으나 농수산물 보호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음.
- 향후 한·일 FTA의 성공적 체결 여부는 상품무역 분야에서 우리 측 제조업과 일본 측 농수산업의 양허수준에 달려 있으나, 양국 정상의 정치적 리더십 여하에 따라서는 급진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정부가 제시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감안하여 향후 일본과의 기술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일본정부는 2008년에 21개의 핵심 저탄소기술(고효율 석탄 발전, 연료전지, 2차 전지, 태양광 패널,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을 향후 신성장동력으로 지목
- 최근에는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저탄소 관련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중시

연구진

김규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부연구위원
(keiokim@kiep.go.kr, Tel: 3460-1017)

김은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eunji@kiep.go.kr, Tel: 3460-1035)

3. EU

가. 경제위기 진행 현황

■ 2008년 하반기부터 비롯된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EU경제는 2008년 2/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2009년 1/4분기 EU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기준, -2.5%로 4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0.1%(2008. 2/4) → -0.3%(2008. 3/4) → -1.5%(2008. 4/4) → -2.5%(2009. 1/4)

- 산업가동률은 7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유로존의 부동산 시장도 작년 3/4분기부터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EU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었음.

표 8. EU 및 주요 회원국의 실질GDP 증가율 추이

(단위: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EU27	2.4	2.1	2.4 (0.5)	1.7 (-0.1)	0.7 (-0.3)	-1.4 (-1.5)	-3.8 (-2.5)
유로존	2.4	2.1	2.2 (0.7)	1.5 (-0.3)	0.6 (-0.3)	-1.4 (-1.6)	-4.1 (-2.5)
독일	3.1	3.5	2.8 (1.5)	2.0 (-0.5)	0.8 (-0.5)	-1.6 (-2.2)	-6.1 (-3.8)
프랑스	1.6	1.6	2.0 (0.4)	1.1 (-0.4)	0.6 (-0.2)	-0.9 (-1.5)	-2.7 (-1.2)
영국	2.2	2.7	2.6 (0.3)	1.8 (0.0)	0.4 (0.7)	-2.0 (-1.6)	-3.3 (-1.9)

주: 분기별 증가율은 전기대비 기준이며 () 안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자료: EU 집행위원회; EU 통계청(Eurostat).

■ 주요 회원국별로 보면 서유럽에서는 아일랜드와 독일의 경기 침체가 두드러지며, 동유럽의 경우 발트 3국을 비롯하여, 헝가리 등이 큰 폭의 실질GDP 감소를 나타내고 있음.

-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면서 건설경기의 침체로 아일랜드는 전년동기대비 -8.3%의 실질 GDP 하락을 나타냈으며, 세계 경기의 침체로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은 -6.1%의 실질GDP 감소를 기록함.

- 금융위기의 불안 속에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및 리투아니아는 각각 -12.8%, -11.9%, -5.8%의 실질GDP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헝가리 또한 -5.7%의 성장률을 기록함.

■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물가안정목표인 2% 선을 훨씬 밑돌며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

- 2008년 6월에 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은 올해 3월 EU와 유로존에서 각각 1.3%와 0.6%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하향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6월 30일 유럽통계국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0.1%에 이르렀다고 발표¹⁾

그림 4. 유로존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유럽통계국(Eurostat).

■ 유럽중앙은행(ECB)은 2008년 10월 이후 7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0% 수준으로 인하

- ECB는 지난 8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2.75%포인트 낮추었으며 앞으로의 추가 인하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여 미국의 기준금리 0~0.25%에 점점 근접해가고 있음.

■ 2008년 하반기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유럽도 강타하여, 동유럽 일부 국가들의 경우 국가 부도의 위기에 직면함.

- 신용평가기관인 S&P는 지난 1월 스페인의 국가신용도를 AAA에서 AA+, 포르투갈은 AA-에서 A+, 그리스는 A에서 A-로 하향조정하였고, 3월에는 높은 경제성장률로 주목받았던 아일랜드의 신용등급을 AA+로 하향 조정²⁾

1)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원유와,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을 들 수 있음. 에너지와 식량원자재 등을 뺀 Core HICP 인플레이션의 경우, 작년 8월 2.6%에서 금년 3월 1.5%로 그 감소폭이 Headline HICP 인플레이션보다 더 적게 나타남.

2)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지난 4월 발트 3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모두 낮춘다고 발표했으며, S&P는 5월 GDP의 100%에 이를 수 있는 영국정부의 부채에 우려를 표시하며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었음.

- 작년 11월 헝가리가 157억 달러의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데 이어 12월 라트비아가 24억 달러 상당의 구제금융에 합의했으며,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올해 각각 171억 달러의 구제금융과 200억 달러의 단기외환자금을 IMF에 요청하는 등, 동유럽 국가의 외환위기가 가시화됨.

표 9. 최근의 유럽 각국에 대한 IMF의 지원책³⁾

국가	일시	지원프로그램 ¹⁾	지원규모
아이슬란드	2008. 11. 19	SBA	21억 달러
우크라이나	2008. 11. 5	SBA	164억 달러
헝가리	2008. 11. 6	SBA	157억달러
라트비아	2008. 12. 23	SBA	23.5억 달러
벨라루스	2009. 1. 12	SBA	24.6억 달러
루마니아	2009. 5. 4	SBA	171억 달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²⁾	2009. 5. 5	SBA	15.2억 달러
폴란드	2009. 5. 6	FCL	200억 달러
세르비아	2009. 5. 15	SBA	40억 달러

주: 1) SBA(Stand-By Arrangement): 대기성 차관, FCL(Flexible Credit Line): 신축적 신용공여, 2) IMF 이사회가 차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자료: IMF.

- 서유럽 은행들의 동유럽 금융기관에 대한 높은 자본참여와 직접투자를 고려할 때, 동유럽 국가에 투자된 서유럽 자금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유로 경제권 자체로 위기가 확산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
- 지난 5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C)와 유럽금융감독기구(ESFS)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으나 감독권 이양을 둘러싼 영국 등의 반대와 중·동유럽국가들의 유보적인 자세로 담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음.

나. 2009년 하반기 경제 전망

■ 대부분의 경기지표는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EU지역의 GDP는 2009년 -4%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10년이 되어야 금융안정과 수요 확대,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3) 대기성 차관의 경우 구제금융에 대한 조건으로 수혜국에 IMF와 사전 합의에 의해 수립된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2009년 3월에 수립된 신축적 신용공여 제도의 경우 위기의 예방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신용라인이며 특정 경제정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EU 주요국의 실질GDP가 모두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일이 -5.5%, 영국과 이탈리아가 -4~-4.5%, 프랑스와 스페인이 -3%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항목별로는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한 정부소비의 증가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계소비 위축, 산업가동률 하락, 기업이윤 감소, 불확실한 경기 전망 등으로 인한 투자부문의 위축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한 큰 폭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의 수출국인 독일(-16.1%)을 비롯, 핀란드(-18.3%), 이탈리아(-15.6%), 루마니아(-16.9%), 리투아니아 (-15.1%) 등이 큰 폭의 수출 감소를 겪을 것으로 보임.

표 10. EU27의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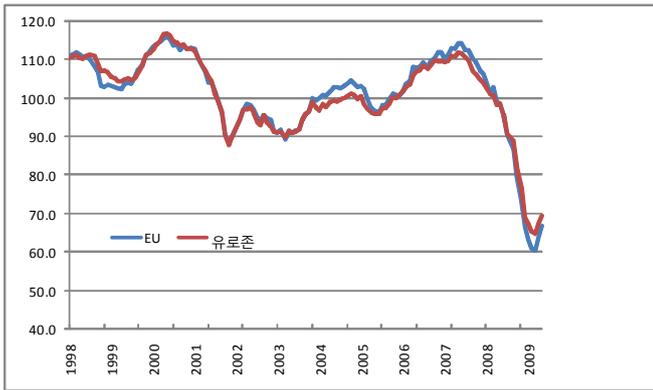
구분	2007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십억 유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실질GDP 성장률			
가계 소비	7,074.2	57.3	2.2	0.9	-1.5	-0.4
정부 소비	2,515.5	20.4	1.9	2.2	1.9	1.7
총투자	2,626.6	21.3	5.4	0.1	-10.5	-2.9
수출	4,978.0	40.3	5.0	1.6	-12.6	-0.2
수입	4,913.3	39.8	5.2	1.5	-11.0	-0.9
GDP	12,343.7	100	2.9	0.9	-4.0	-0.1

주: 2009, 2010년은 전망자료임.
 자료: EU 집행위원회.

■ 3~6월 들어 일부 경제심리지표가 상승하거나, 하락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의 신호로 낙관하기에는 이룸.

- 유로존 Composite PMI지수는 올 3월 최저점(36.2)을 기록한 후 6월 44.6을 기록하여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며 2008년 9월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
- EU 집행위원회의 경기체감지수(ESI) 또한 지난 3월 집계 사상 최저점인 60.4를 기록한 후 소매와 서비스 부문의 상승에 힘입어 세 달째 상승세를 보였으며, 유로존 주요국의 경기심리지표인 IFO의 비즈니스환경지수와 INSEE 경기지수 또한 세 달째 상승세를 보여줌.

그림 5. 유럽경제의 경기침체지수(ESI)



자료: 유럽통계국(Eurostat).

- 이러한 경기심리지표들이 산업생산 및 GDP 추이에 대한 선행지수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경기침체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각종 실물경기 지표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불안의 우려도 높아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움직임은 2010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 고용시장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소비지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의 약세로 인해 실질소득의 하락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09년에는 유로존에서 2.5%의 고용감소가 예상되며 2010년에는 1.5%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2009~10년 동안에 85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실업률은 2010년 EU 전체에서는 11%, 유로존에서는 11.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페인에서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명목임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플레이션의 약세로 실질임금은 2009년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인플레이션이 끝나는 2010년경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에 의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세수 감소와 각국이 채택한 대규모의 재정지출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는 GDP 대비 2008년 2.3%에서 2009년 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 정책이 계속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2010년에는 GDP 대비 7%에 이를 것으로 보임.⁴⁾

- 은행 재자본화와 같은 금융구제책으로 인해 EU의 공공부채는 2008년 GDP 대비 61.5%에서 2009년 71.5%, 2010년에는 79.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로존의 경우 2009년에는 69%, 2010년에는 8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다. 한-EU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 EU의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2009년 한국과 EU 간의 교역 및 투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한국과 EU 간의 상품교역은 2000~08년 동안 50% 증가했으며, 한국은 2008년 대EU 무역에서 14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EU가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으로 자리 잡음.⁵⁾

- 경제침체의 여파로 한-EU 간 교역규모는 2008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규모 역시 2006년 이후 줄어들고 있음.

○ 대EU 무역: 2007년 661억 유로 → 2008년 650억 유로
 대EU 상호투자: 2005년 62.9억 유로 → 2006년 28.9억 유로 → 2007년 19.8억 유로

- 2009년 EU의 수출과 수입이 각각 12.6%, 1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과 EU 간의 교역과 투자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경기침체 상황에서 각국의 보호무역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EU FTA는 교역시장을 공고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음.

- 일부 EU 산업계는 관세 환급, 원산지규정 등을 둘러싸고 한·EU FTA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음.

-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자국 자동차산업의 피해를 우려, 현재의 한·EU 협상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우려를 표시하는 반면, 서비스산업에서 흑

4) 2009년 EU 27개국 중 21개국이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수렴조건(재정적자를 경상 GDP의 3% 이내로, 정부부채를 경상 GDP의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5) 한국은 EU와의 상품교역에서는 흑자를, 서비스교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는 무역구조를 유지하는데, 한국의 대EU 무역수지 흑자의 40% 가량이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함.

자를 보고 있는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 한-EU FTA가 조속히 타결되기를 희망함.

- 2010년 경기가 서서히 회복 기미를 보인다 하더라도, 실업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 각 산업계가 보호무역적인 경향을 보이는 등, 무역개방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현재의 한-EU FTA의 연내 협상과 타결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진

강유덕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Tel: 3460-1123)

II. 신흥시장국

1.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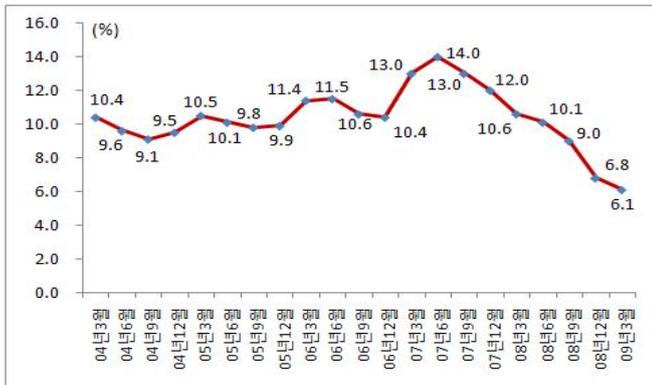
가. 경제위기 진행 현황

■ 경제성장 둔화세 지속

- 경제성장률이 2007년 2/4분기 14%를 정점으로 2008년에는 분기별로 10.6%, 10.1%, 9.0%, 6.8%를 기록한 데 이어 금년 1/4분기에는 6.1%로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 증가세 둔화 및 수출 급감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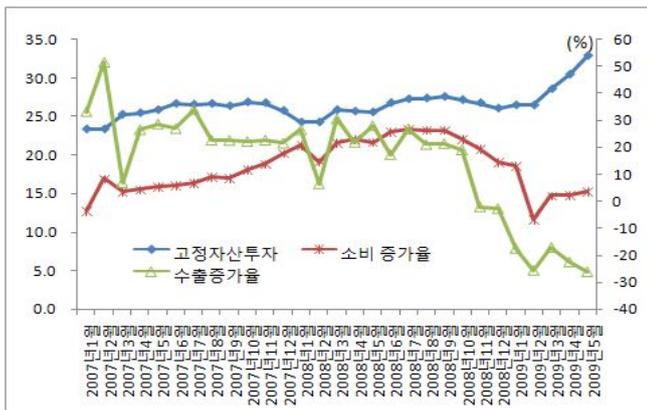
그림 6.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내수의 중심은 투자지출로서,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008년 12월 26.1%에서 2009년 4월 30.5%, 5월에는 32.9%로 상승하였고, 소비지출 증가율은 작년 7월 23.3%에서 금년 2월 11.6%까지 둔화된 데 이어 4월 14.8%, 5월 15.2%로 소폭 상승에 그침.

그림 7. 중국의 월별 고정자산투자, 소비,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투자 증가는 주로 작년 11월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의한 정부부문 투자가 위주일 것으로 추정됨.

- 글로벌 경기침체 와중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면 양호한 상황인데, 이는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임.

표 11.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8년					2009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5월	5월
GDP(%)	9.0	10.6	10.1	9.0	6.8	6.1	-	-
소매판매	21.6	20.6	22.2	23.2	20.6	15.0	15.0	15.2
고정자산투자	25.5	24.6	26.3	27.0	25.5	28.8	32.9	-
수출	17.2	21.4	22.4	23.0	4.3	-19.7	-21.9	-26.4
소비자물가	5.9	8.0	7.8	5.3	2.5	-0.6	-0.9	-1.4
총통화(%)	17.8	16.3	17.4	15.3	17.8	25.5	25.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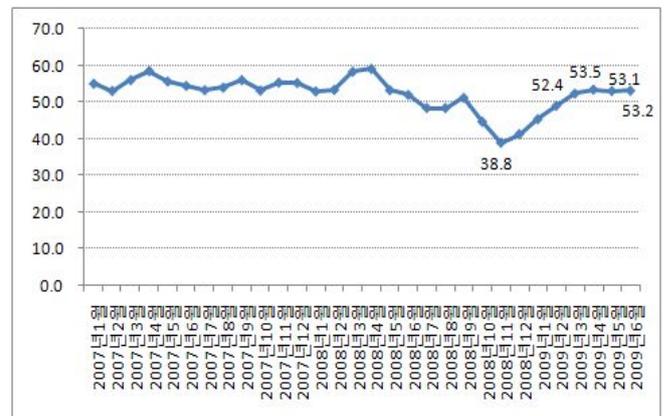
(단위: 억 위안,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최근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으로 경기회복 기미가 보임.

- 2008년 9월(51.2)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금년 3월부터 다시 50선을 상회하고 있음.⁶⁾

그림 8.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월별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상하이종합주가지수도 6월 말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약 62.5% 상승

○ 2009년 6월 중국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959.4포인트로 2008년 12월의 1,820.8포인트보다 62.5% 상승하였으며, 거래액은 작년 말 대비 97.2% 증가한 30억 8,250만 달러를 기록

6) 구매관리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가 50 이상일 경우 경기확장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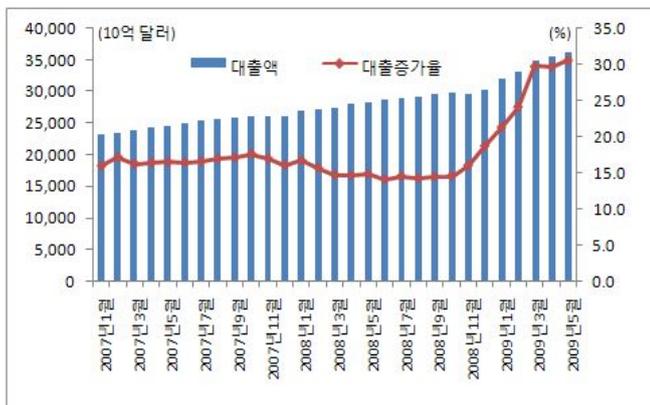
그림 9. 월별 상하이종합주가지수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2008년 9월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는 은행 신규대출은 금년 1~5월 중 36조 2,118억 위안(5조 2,999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15.7%포인트 상승한 30.6%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그림 10. 중국의 월별 대출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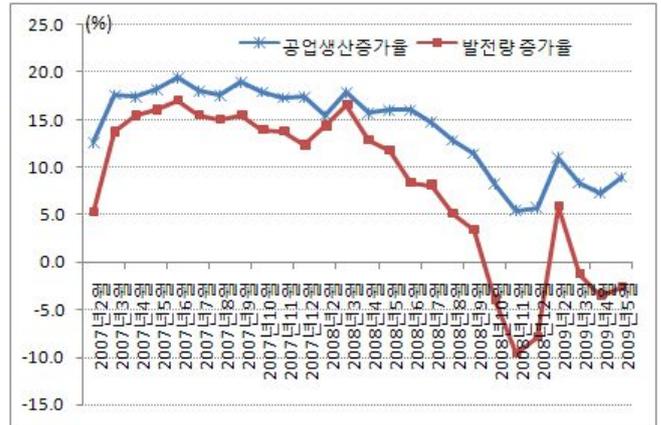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

- 공업생산과 발전량 증가율은 금년 2월 각각 11.5%, 5.9%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5월에는 각각 8.9%, -2.7%를 기록
- o 단 공업생산 증가율이 4월 대비 소폭(1.6%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전량의 감소세도 소폭(0.8%포인트) 둔화됨.⁷⁾

그림 11. 중국 공업생산과 발전량의 증가율 추이



자료: CEIC.

-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작년 8월(10.1%) 이후 급락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작년 2월 8.7%를 기록한 이래 지속 하락하고 있음.
- o 생산자물가지수는 금년 1~5월에 각각 -3.3%, -4.5%, -6.0%, -6.6% 및 -7.2%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금년 2월 -1.6%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후 3월 -1.2%, 4월 -1.5%에 이어 5월에는 -1.4%를 기록함.

그림 12.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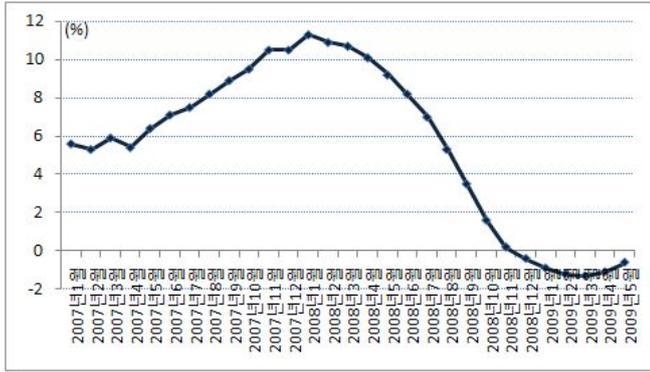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2008년 1월 11.3%를 정점으로 급락한 부동산가격지수는 2008년 12월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되었으며, 5월 현재 -0.6%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o 단 부동산가격지수의 최근 몇 개월간 증가율이 3월 -1.3%, 4월 -1.1%, 5월 -0.6%으로 금년 3월부터 감소세가 소폭 둔화되고 있음.

7) 공업생산과 전력발전량은 정(正)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산업용 전력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13. 중국 부동산가격지수 추이



자료: CEIC

■ 단, 경기회복의 지속성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울 듯

- 공업생산 증가율 둔화, 물가 및 부동산가격지수 지속 하락 등 일부 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가계 소비지출 확대 및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 가능성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움.
- 또한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부진으로 해외수요 확대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인 4.3%(금년 3월)보다 높은 9~10%로 추정되는 등 가계 소비 부진 가능성이 높은 편임.

나. 2009년 하반기 경제 전망

■ 경기부양책 효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빠른 경제회복 예상

- 1분기 지표 발표 후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으로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기관이 있는 반면 하향 조정한 전망기관도 있어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 및 비관적 전망이 혼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망치가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인 6.1%를 상회함.
- 4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에 대한 투자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기존 부양책을 보완하는 수준의 추가 대책의 시행 가능성이 높아서 3분기 이후 경기 회복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⁸⁾

표 12. 주요 기관의 중국경제 전망

연도	IMF	GS	MS	OECD	GI	UBS	중국사회과학원
2009	6.5→ 7.5	6.0→ 8.3	6.1→ 7.0	6.3	6.6	6.5→ 7.5	8.3
2010	7.5→ 8.5	10.9	-	8.5	8.1	-	-

주: IMF(2009.7), GS(Goldman Sachs, 2009.4), MS(Morgan Stanley, 2009.4), OECD(2009.3), GI(Global Insight, 2009.5), UBS(2009.4), 중국사회과학원은 2009년 4월 전망치임.

자료: 각 기관 사이트

- 중국정부는 기존의 인프라 투자 확대 위주의 경기부양책 외에 수출지원정책 및 내수부양을 위한 자동차와 가전제품 구입에 대해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조치⁹⁾를 실시하기로 함.

8) IMF의 경우 하향 조정했던 4월의 전망치를 최근 다시 1%포인트 상향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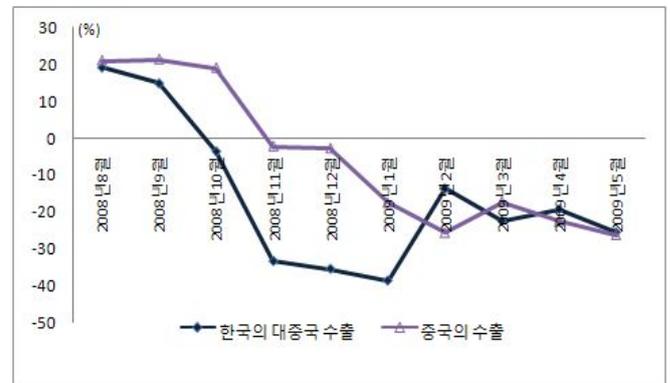
9) 중국정부는 농업용 차량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소형차량

다.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 대중국 수출 감소세 지속될 전망

- 중국의 수출이 작년 11월부터 감소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금년 안에 중국의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불확실함에 따라,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¹⁰⁾

그림 14.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 및 중국의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 및 중국무역 통계

구입 시 취득세를 10%에서 5%로 인하하는 제도, 농민이 가진 하향에 해당되는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판매가의 13%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전하향(家電下鄉)정책을 이미 시행해왔음. 이번에 실시되는 추가적인 조치로 구형 자동차를 폐차하고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현행 10억 위안에서 50억 위안으로 확대하는 자동차 구매 촉진조치와 가전제품 교체시 보조금으로 20억 위안을 배정하여 베이징, 상하이 등 9개 지역에서 TV, 냉장고 등 5대 가전제품을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1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시지역에 대한 가전제품 소비 확대조치가 있음.

10)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이 중국에서 부품 및 소재로 사용되는 중간재 위주(2008년 기준 77.8%)인데다가 대중국 수출의 54.3%가 중국 내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 감소는 곧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를 초래.

- 단, 대중국 수입 증가율 감소가 수출 증가율 감소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금년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145억 원)보다 큰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1~5월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25.5%, 42.1% 감소하였으나, 수입 증가율의 감소폭이 수출 증가율 감소폭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대중국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19.9억 달러 증가한 95.4억 달러를 기록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금년도 대중국 무역수지가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2005년 수준(232.7억 달러)을 능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향후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증가할 가능성 높음.

연구진

이승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sslee@kiep.go.kr, Tel: 3460-1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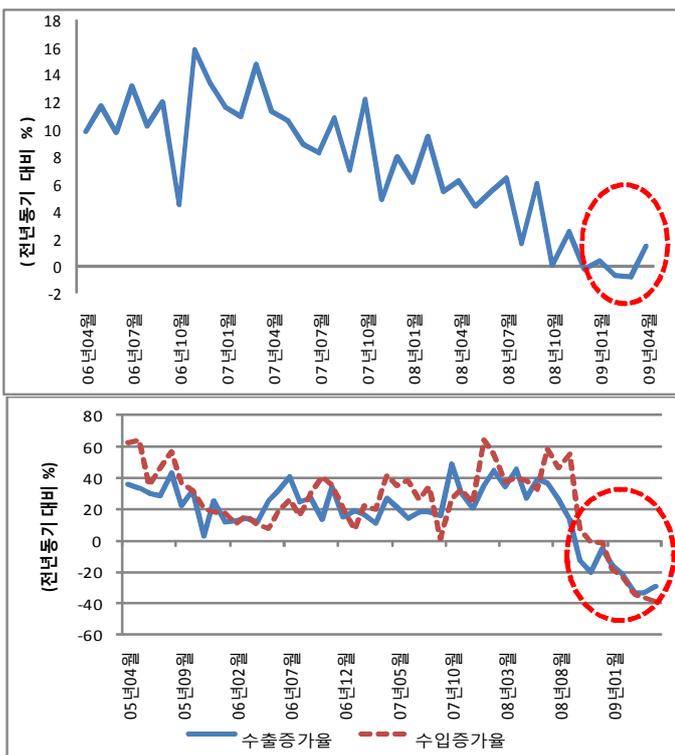
2. 인도

가. 최근 경기 동향

■ 지난 4월 광공업 생산이 6개월 만에 1.4% 증가로 반전

- 광공업 생산은 08년 12월 전년동기대비 첫 감소한 이후 1월 한때 증가한 다음, 지난 3월까지 줄곧 감소
- 광공업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이 3월까지 감소하다 4월 0.7% 증가
- 특히 내구소비재생산이 4월 전년동기대비 약 17% 증가
- 제조업구매관리지수(PMI)도 지난해 10월 이후 50 이하로 급감했다가 4월 55.3에 이어 5월 55.7로 2개월 연속 상승세(ABN AMRO 자료)
- 하지만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째 지속 감소
- 미국, 유럽 등의 경기침체로 수출은 5월 전년동기대비 29.2% 감소
- 국내경기 둔화 및 국제상품 가격 하락으로 수입도 지난 11월 이후 지속 감소, 5월 전년동기대비 39.2% 감소

그림 15. 광공업 생산 및 수출입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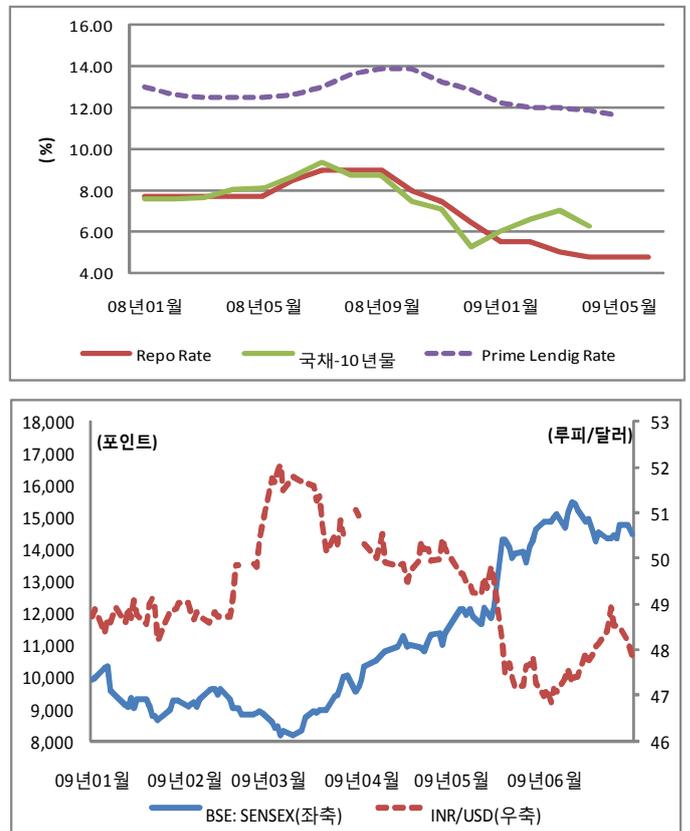


자료: CEIC.

■ 금융시장도 5월 총선 이후 회복 안정세

- 3월 들어 급등한 주가지수는 5월 중순 통일진보연합(UPA)의 재집권이 확정되자 또다시 급등, 환율도 크게 떨어짐.
- 뭄바이 센섹스 지수는 지난 3월 초까지 하락하다 상승세로 반전, 지난 5월 총선 이후 급등하여 6월 말까지 연초 대비 약 46% 상승
- 루피/달러 환율도 3월 초 52루피를 돌파하는 등 급등하다 하락세로 돌아선 뒤, 총선 이후 급락하여 6월 평균 47.9루피를 기록, 연초 대비 1.7% 하락
- 정책금리의 대폭적인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충분히 인하되지 않고 있지만 자금시장 경색은 완화됨.
- Repo Rate는 지난해 9월 리먼 사태 이후 올 6월 말까지 425bp 인하, 이에 비해 시중은행의 우대대출 금리는 5월까지 225bp 인하에 그침.
- 하지만 지난 3월 7%를 돌파했던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4월 6.3%로 급락하는 등 자금시장도 완화되는 추세

그림 16. 뭄바이 SENSEX 지수 및 루피/달러 환율,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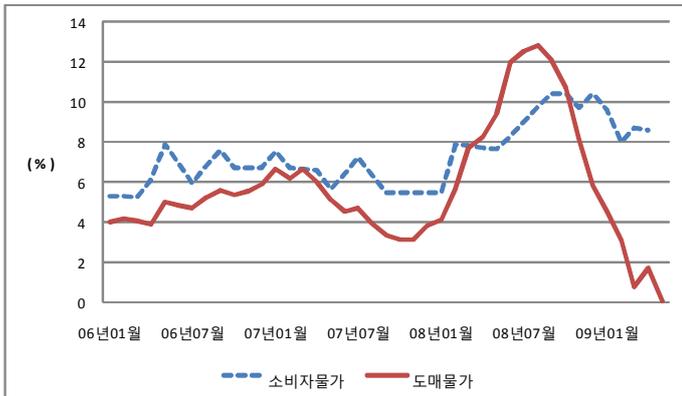
자료: CEIC.

나.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

■ 경기부양 및 경제개혁 정책이 보다 강력히 추진될 전망

- 경기회복은 신정부의 중요한 총선 공약 중 하나
- 그동안 경기부양정책에 가장 부담이 되어온 물가, 특히 도매물가가 지난 3월 이후 급락, 6월 중순 이후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시현
- 이에 따라 올해 안에 1~2차례, 최소 50bp 정도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
- 그동안 개혁정책 추진에 걸림이 되어왔던 공산계 정당 의석이 이번 총선으로 크게 줄어들어 개혁정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KIEP 지역경제포커스 09-18호 참고)
- 특히 민영화, 금융 및 소매유통 부문 시장개방 확대는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 투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

그림 17.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CEIC.

표 13. 재추진이 예상되는 경제개혁 정책

민영화	- 지난 정부, 공산계정당의 반대로 단 1건도 성사시키지 못함. - 내·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재정수입에도 기여할 전망
노동법	-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조의 동의하에 근로자 파면 및 직장 폐쇄가 가능한 현 노동법의 개정 및 완화
금융	- 보험업 시장개방 폭 26%에서 49%로 확대 - 은행 의결권(기존 10%) 확대 및 외국계은행 지점 설치 자유화 등
소매유통	- 단일 브랜드에 한해 51%까지 외국인투자 개방안 완화 - 전자, 전자재, 스포츠용품, 문구류 등 복수 브랜드 100% 개방 등

자료: CEIC.

■ 2009년 글로벌 경기위축의 제약으로 6%대 성장률 전망

- 이륜차, 승용차, 휴대폰 등 내수 소비재 판매 호조, 개혁성향의 UPA 연정 재집권 등 대내적 환경은 개선
- 총선 이후 안정된 금융시장이 유지되고, 신정부의 경기부양 및 개혁 정책이 추진되면, 투자가 회복되면서 경기회복이 보다 가시화될 전망
- 모건스탠리, UBS 등은 총선 이후 2009년 성장률 전망치를 6%대로 일제히 상향 조정
- 하지만 글로벌 경기위축이 해소되지 않는 한, 7% 이상의 성장률은 기대하기 어려움.
- 추가적인 금리인하로 투자가 다소 활력을 찾아도 과거와 같은 두 자릿수의 투자증가율은 아직 기대할 수 없는 상황
- 섬유, 보석가공 등 일부 수출 부문에서는 여전히 고용이 감소한 상태
- 엘니뇨(El Nino) 등의 영향으로 불안한 농업생산도 7% 이상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표 14. 주요 기관별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8/09년	2009/10년(F)	2010/2011(F)
IMF(2009.4)	7.1	4.5	5.6
Global Insight(2009.5)		4.3	5.8
EIU(2009.5)		5.0	6.4
모건스탠리(2009.5)		6.2	6.8
UBS(2009.5)		6.2	7.8
Citigroup(2009.6)		6.8	7.8

자료: 각 기관 최근 전망 보고서

다. 한·인도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 한·인도 CEPA 추진 가속화 및 적극 활용 필요

- 인도 총선으로 미뤄진 양국간 본서명 및 국회 비준을 서둘러 한·인도 CEPA를 조기 발효시킴으로써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함.
- 상품부문에 있어 양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조기발효를 통해 만회

- 신정부 출범으로 인도·일본 FTA가 보다 빨리 타결될 전망
이어서 한·인도 CEPA의 조기 발효가 더욱 더 필요한 상황
- 이와 함께 최초로 독립전문가(IP: Independent Professional)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것에 대비, 인도 전문인력 활용을 위
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개혁정책 및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인도 무역 및 투자 활성화
- 인도는 중국과 함께 글로벌 경기위축 상황에도 가장 안정적
인 성장과 함께 시장을 제공
- 글로벌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휴대폰 등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 견조한 시장성장세를 유지하고 있
음.
- 향후 전개될 금융업 및 소매유통업 개방 확대 등을 한국기
업 진출 확대의 계기로 적극 활용
- 통상 신정부 출범 1년 이내 획기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경
향이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금융업과 소매유통 부문 개방
확대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음.

연구진

조충제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cjcho@kiep.go.kr, Tel: 3460-1025)

3. 러시아

가. 경제위기 진행 현황

■ 2009년 러시아 경기 하강 가시화

- 러시아 경제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대외 수출 급감 및 내수 위축으로 2009년 1~5월간 -10.2%(전년동기대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동 기간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은 금년 1분기 -15% → 4월 -16.2%, 5월 -23.1%로, 1분기 이후 국내 투자 위축이 더욱 심화되었음.
- 공업생산 증가율도 2009년 1분기 -14.3% → 4월 -16.9%, 5월 -17.1%를 기록, 이 중 제조업 부문의 생산 증가율(5월 -23.7%)이 가장 부진한 실적을 나타냄.

표 15.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8년					2009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실질GDP	5.6	8.7	7.5	6.0	1.2	-9.5
가계소비	11.3	12.2	13.4	12.2	8.0	-2.2
총 고정자본투자	10.0	23.5	17.4	12.1	-2.0	-15.2
소비자물가	14.1	12.9	14.9	14.9	13.7	13.7
수출(십억 달러)	471.6	110.1	126.7	136.8	98.0	60.1
수입(십억 달러)	291.9	60.2	75.4	82.9	73.3	38.4
환율(루블/달러, 평균)	24.85	24.27	23.63	24.26	27.26	33.97

자료: 러시아경제개발부; 중앙은행; EIU.

■ 전년대비 수출 및 수입 크게 감소

- 2008년 대비 국제 유가 하락 및 해외 석유수요 감소로 인해 2009년 1~5월간 러시아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6.8% 감소하였음.
- 5월 우랄산 국제유가는 배럴당 56.5달러로, 전년동월대비 약 52% 감소하였으며, 러시아 전체 수출에서 석유·가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임.
- 그러나 연초 대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수출액은 전월대비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1월 202억 달러 → 4월 217억 달러 → 5월 234억 달러).

- 가계소득 감소 및 기업설비투자의 위축으로 자동차, 기계설비 및 운송장비에 대한 수입이 급감하면서 1~5월간 러시아의 수입액은 39.8% 감소하였음.

■ 3월 이후 물가 상승 둔화 및 환율 안정세 전환

-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1분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3월 이후 환율 하락에 의한 수입소비재 물가 상승이 둔화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
-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13.4% → 2월 13.9% → 3월 14% → 4월 13.2% → 5월 12.3%임.
- 1분기 달러당 34루블을 유지하던 환율은 국제유가 상승과 중앙은행의 환율 방어로 4월 달러당 33.25루블 → 5월 30.98루블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음.
- 국제유가 하락과 해외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지 확산으로 2008년 8월 달러당 23루블이었던 환율은 2009년 2월 달러당 36루블까지 치솟았음.

■ 정부의 경제위기대책 효과 미약

- 러시아 정부는 국내경기침체가 가시화되자 「2009년 경제위기극복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나, 일부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제외하고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동 프로그램을 통해 약 3조 루블(약 967억 달러, GDP 대비 5.7%)을 지원할 계획이나, 자금지원이 일부 대형은행 및 대기업에 편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지원도 제때 실행되지 않는 실정임.
- 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이 증가함에 따라 5월 실업률이 다소 낮아졌으나(3월 10% → 4월 10.2% → 5월 9.9%), 민간기업의 고용률이 증가하지 않는 한 한시적 효과일 가능성이 높음.

나. 2009년 하반기 경제 전망

■ 2009년 러시아 -6.5% ~ -8.5%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 2009년 상반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기업실적 악화 및 가계소득 감소가 호전되지 않자 IMF, 세계은행 등 주요 기관별 러시아 경제 전망치가 모두 하향 조정되었음.
-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 산업생산성 저하, 고용 감축 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9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3.4%포인트 하향조정하였음.
- 연초에만 해도 -2.2%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던 러시아 경제개발부도 5월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하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음.

- 2009년 하반기부터 세계경기침체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러시아 경기침체도 상반기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정부의 경기부양 및 금융안정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경우 2010년에는 0.5~1%의 플러스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다. 한·러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 2009년 들어 한·러 양국 교역규모 급감

- 한·러 양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 1~5월간 양국 교역규모는 -57%로 크게 감소하였음.
- 2008년과 2009년 1~5월간 한국의 대러 수출입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대러 수출 증가율은 2008년 39.3% → 2009년 -63.6%, 대러 수입 증가율은 2008년 27.8% → 2009년 -49.2%로 크게 하락하였음.
- 수출의 경우, 러시아 내수 위축으로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및 합성수지 등의 대러 수출액이 크게 감소함.
- 수입의 경우, 주요 대러 수입품목인 원유 및 유연탄 등의 수입액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상반기 원자재 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러 수입액이 크게 감소한 원인은 한국의 수출 부진이 원자재 수요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임.

■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감소세 지속 예상

- 러시아 경제가 과거의 수준과 같이 회복되기에는 향후 2~3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16. 주요 기관별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IMF	2009년 4월 전망	8.1	5.6	-6.0
	2009년 6월 전망			-6.5
OECD	2009년 3월 전망			-5.6
	2009년 6월 전망			-6.8
세계은행	2009년 3월 전망			-4.5
	2009년 6월 전망			-7.9
러시아 경제개발부	2009년 5월 전망	-4.0~-6.0		
	2009년 6월 전망	-8.5		

자료: IMF; OECD; 세계은행; 러시아 경제개발부.

■ 실업률 증가와 사회 중산층 감소 예상

-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정부 지원책이 민간기업에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할 경우 러시아 노동시장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증대로 5월 실업률이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기업실적 악화가 지속될 경우 기업 도산으로 인한 임원 감축, 근로자 해임 등으로 2009년 실업률은 최대 13%까지 증가할 수 있음.
- 실질임금 감소,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러시아 중산층의 비중이 약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대외경제여건에 따라 러시아 경기회복 속도 결정

- 러시아 경제구조상 에너지수출 의존도가 높은바, 세계 거시경제여건의 개선 속도에 따라 러시아의 경기회복 시기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연구진

황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hjydream@kiep.go.kr, Tel: 3460-1095)

III. 개도국경제권

1. 동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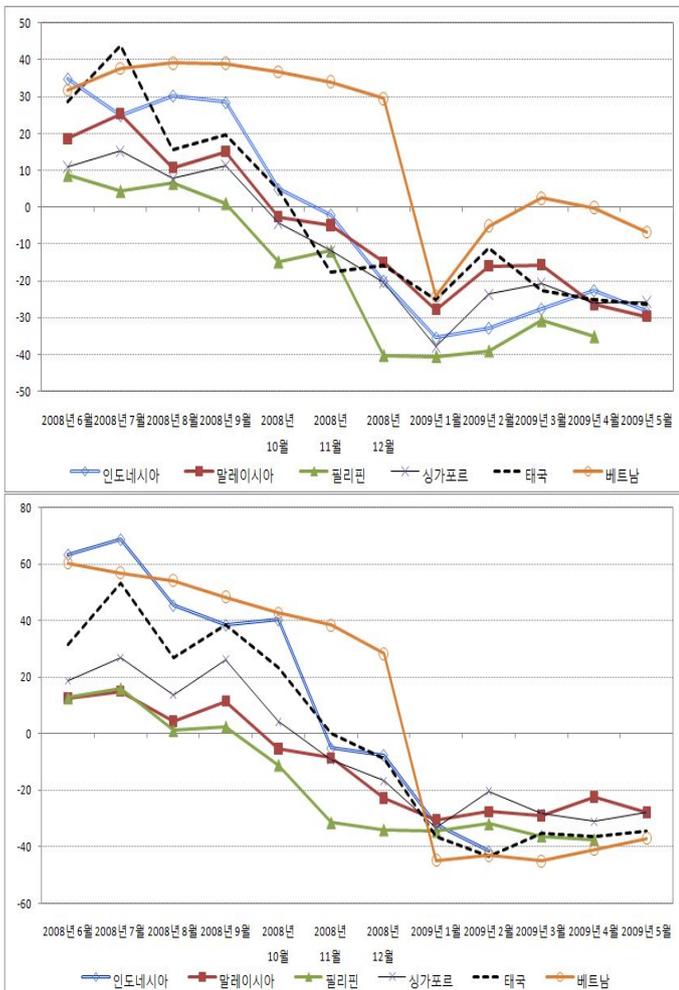
가. 최근 경기 동향

■ 2009년 들어 수출 감소율 둔화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및 선진국 경기침체로 급감하였던 동남아 국가들의 수출은 2009년 1월을 최저점으로 대부분 국가들의 감소세(전년동월대비)가 둔화되고 있으나, 수입은 5월까지 큰 폭의 감소세 지속

그림 18. 동남아 주요국의 월별 수출입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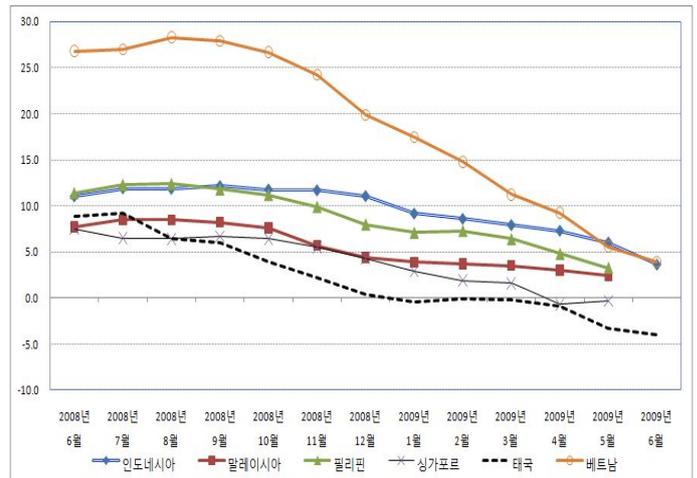
자료: 각국 정부 발표치

■ 소비자물가는 2008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

- 유가를 비롯한 국제자원가격의 하락세와 곡물가의 진정, 각국의 물가억제책, 수입물가 안정 등을 배경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하락하여 2009년 6월에는 5% 이하 기록

그림 19. 동남아 주요국의 월별 CPI 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각국 정부 발표치

- 한때 전년동월대비 30%에 육박하던 베트남은 2009년 4월 들어 한 자릿수로 낮아졌으며, 태국과 싱가포르의 2009년 1월과 4월 이후 마이너스 기록

■ 제조업 생산 감소와 수출 감소 등으로 2009년 1/4분기 GDP 성장률 크게 악화

- 대외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각각 -10.1%와 -6.2%,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은 태국은 -7.1%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 기록
- 반면 인도네시아는 탄탄한 내수 기반, 농업작황 호조, 연이은 선거로 인한 소비확대 등으로 4.4% 성장하였고, 베트남은 FDI 호황으로 3.1% 성장

표 17. 동남아 주요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분기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008-1Q	6.2	7.4	4.7	6.7	6	7.4
2008-2Q	6.4	6.7	4.4	2.5	5.3	6.5
2008-3Q	6.4	4.7	5.0	0	3.9	6.5
2008-4Q	5.2	0.1	2.9	-4.2	-4.2	6.2
2009-1Q	4.4	-6.2	0.4	-10.1	-7.1	3.1

자료: 각국 정부 발표치

■ 주가는 최근 대폭 상승

- 주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 및 경기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을 배경으로 연초(1월 2일) 대비 7월 3일 현재 인도네시아 52.4%, 베트남 38.4%, 필리핀 30.2%, 싱가포르 26.8%, 태국 30.3%, 말레이시아 20.6% 상승

나.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

■ 대규모 경기부양책 하반기부터 효과 발휘할 듯

표 18. 동남아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개요(200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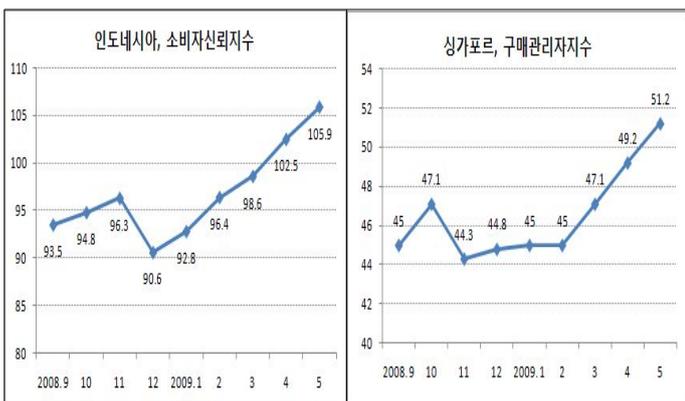
	주요 대책	대책규모	발표시기
싱가포르	기업자금지원	29억 싱가포르달러	2008.11.21
	경기부양책(2009년)	205억 싱가포르달러 (GDP 8.4%)	2009.1.22
말레이시아	경기부양책	70억 링깃	2008.12.7
	2차 경기부양책 (2009~10년)	600억 링깃 (GDP 9%)	2009.3.10
인도네시아	10개항 급경제대책	(금융안정 목적)	2008.10.28
	경기부양책(2009년)	73.3조 루피아 (GDP 1.8%)	2009.1.4
태국	경기부양 및 세제지원	1,550억 바트 (GDP 1.6%)	2009.1.13
	2차 경기부양책 (2010~12년)	1조 5,668억 바트 (GDP 4.7%)	2009.3.25
필리핀	인프라건설기금	1,000억 페소	2008.10.2
	경기부양책(2009년)	3,300억 페소 (GDP 4.5%)	2009.1.17
베트남	기업지원책(2009년)	10억 달러~60억 달러로 확대 (GDP 5.3%)	2009.1.15

■ 주요국의 경기선행지수 2009년 들어 상승세 지속

- 특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4월과 5월을 기점으로 경기호황을 예고

그림 20. 동남아 주요국의 월별 경기선행 관련지수 추이

(단위: %)



[그림 20 계속]



자료: 각국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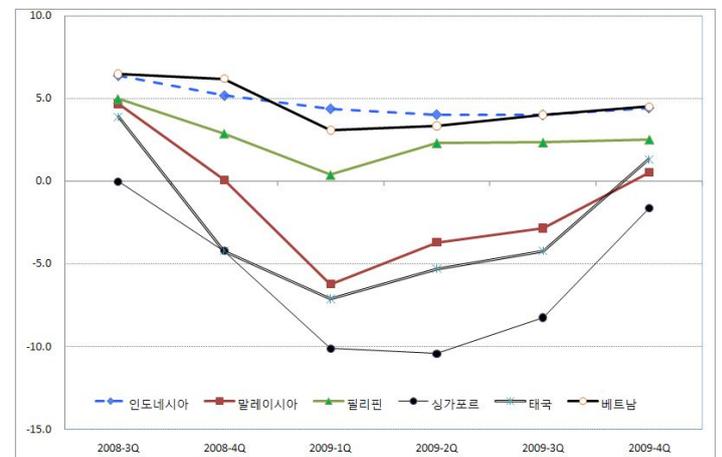
■ 2009년 1/4분기와 2/4분기를 최저점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 확산

- JP Morgan을 비롯한 10여 개 기관의 전망치를 보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2/4분기, 나머지 국가는 1/4분기를 저점으로 성장을 상승세로 반전
- 따라서 동남아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회복되고 2009년 전체로도 IMF 전망치보다는 양호한 실적 기록할 듯

표 19. 동남아 주요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국가	2008년 (실적)	2009년		
		ADB(3. 30)	IMF(4. 22)	각국 정부
싱가포르	1.1	-5.0	-10.0	-6 ~ -9
말레이시아	4.6	-0.2	-3.5	-1 ~ 1
인도네시아	6.1	3.6	2.5	3 ~ 4
태국	2.6	-2.0	-3.0	-1.5 ~ -3.5
필리핀	3.8	2.5	0.0	5
베트남	6.2	4.5	3.3	3.1 ~ 4.1
동남아 전체	4.3	0.7	0.01	



- 주: 1) ASEAN5(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를 의미.
- 2) 분기별 성장률은 JP Morgan을 비롯한 10여 개 기관 전망치의 평균값.
- 3) 2009년 1/4분기는 실적치.

자료: 각국 정부; ADB; IMF; Bloomberg.

다. 한-ASEAN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 동남아 경제의 조기 회복은 우리의 수출 및 투자에 큰 기회를 제공
 - 동남아는 우리의 3대 교역권, 3대 투자지역, 2대 해외건설 시장으로 부상할 만큼 중요한 시장이고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안겨줄 수 있는 지역인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척 필요
- 특히 한-ASEAN 특별정상회의와 한-ASEAN FTA 투자협정 체결(6월 2일) 이후 시행되는 각종 후속조치의 효과나 FTA 이행의 극대화 필요

연구진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jwcheong@kiep.go.kr, Tel: 3460-1051)

2. 중남미

가. 경제위기 진행 현황

■ 2009년 1분기 들어 본격적인 침체국면 진입

- 중남미 경제는 신용경색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위축, 1차상품 수출 급감, 광공업 생산 급락 등의 영향으로 2009년 1분기 들어 본격적인 침체국면 진입
- 국별로는 대미 경제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경제가 가장 심각한 침체(전년동기대비 8.2% 성장 하락)를 겪고 있으며, 브라질과 칠레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세 진입

표 20. 중남미 주요국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국 가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1/4	2/4	3/4	4/4	1/4
중남미	5.7	4.6	5.1	5.2	4.6	1.0	-2.8 ¹⁾
브라질	5.7	5.1	6.1	6.2	6.8	1.3	-1.8
멕시코	3.3	1.4	2.6	2.9	1.7	-1.6	-8.2
칠 레	4.7	3.2	3.6	4.1	4.1	0.2	-2.1

주: 1) Global Insight 추정치(2009. 6. 14).

■ 글로벌 경기 및 내수 침체로 수출입 큰 폭 하락

- 주종 수출품인 1차상품 가격 하락,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침체로 중남미 수출은 2008년 11월부터 두 자릿수 하락세

○ 2009년 1~4월 수출은 월평균 29% 하락(전년동기대비)했으며, 국별로는 칠레(-41.2%), 멕시코(-30.4%), 브라질(-17.5%) 순으로 높은 수출 하락세

- 소비 및 생산 감소로 2008년 11월부터 중남미 수입도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

○ 2009년 1~4월 수입은 월평균 23.7% 하락(전년동기대비)했으며, 국별로는 칠레(-32.7%), 멕시코(-30.4%), 브라질(-23.7%) 순으로 큰 폭의 수입 감소세

■ 광공업 생산 급락으로 지속적 고용 악화

- 중남미 주요국의 광공업 생산은 2008년 9월 이후 일제히 마이너스로 전환, 2009년 들어 두 자릿수 하락세 지속

○ 광공업 생산 하락률(2009.1~4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브라질 14.7%, 멕시코 10.7%, 칠레 9.7%

- 2008년 3분기 이후 광공업 생산의 뚜렷한 하락세로 중남미 주요국에서 고용 악화 → 실업률 증가의 악순환 지속

○ 실업률 추이: 브라질 7.6%(08.9) → 8.9%(09.4), 멕시코 4.3% → 5.3%, 칠레 7.8% → 9.8%

나. 2009년 하반기 경제 전망

■ 2%대 마이너스 성장세 전망

- 중남미 경제는 빠르면 2009년 2~3분기 경기저점을 지나 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

○ 국별로는 칠레 경제가 3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탈피,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브라질 경제는 4분기 들어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 전망

○ 그에 반해 멕시코 경제는 4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전망

- 2009년 전체적으로 중남미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① 해외자본조달비용 상승 및 자본유입 감소, ② 1차상품 수출 감소, ③ 수출·관광수입·해외송금 유입 감소 등 3중 충격의 영향으로 2%대의 마이너스 성장세 전망

표 21. 2009년 중남미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국가	분기별 전망 ¹⁾			2009년 전체 전망		
	2/4	3/4	4/4	Global Insight(6.14)	EIU (6월)	IMF (4.22)
중남미	-3.0	-2.8	0.0	-2.1	-3.7	-1.5
브라질	-2.7	-2.4	3.0	-1.0	-1.5	-1.3
멕시코	-7.9	-5.4	-2.6	-6.0	-7.1	-3.7
칠 레	-1.4	0.7	2.1	-0.1	-1.0	0.1

자료: 1) 전년동기대비, Global Insight(2009.6.14) 전망 기준.

■ 소지역별로 경기침체 격차 뚜렷

- 지역별로는 수출 및 해외송금 등의 분야에서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와 중미국가들의 경기침체가 보다 현저할 전망

- 멕시코 경제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6~7%)에 직면할 전망
- 남미국가들의 경우 비교적 수출시장이 다변화되어 있어 미국 등 선진권의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나 1차산품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로 경기침체는 불가피할 전망
- 칠레와 브라질 경제의 경우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의 효과로 경기침체가 심각하지 않을 전망이나 1차산품 수출 감소와 광공업 생산 하락에 따른 투자 및 고용감소의 영향으로 1%대 마이너스 성장세 전망
- 국별로는 칠레(-49.1%), 베네수엘라(-49.1%), 아르헨티나(-42.5%), 페루(-41.3%), 브라질(-40.8%), 멕시코(-30.1%) 순으로 높은 하락세
- 품목별로는 경유(-58.3%), 컬러 TV(-56.7%), 승용차(-54.6%), 무선통신기기부품(-36.1%), 합성수지(-30.1%) 순으로 큰 폭의 감소세
- 수입 하락세(-22%)를 상회하는 수출 감소세(-28%)로 2009년 5월까지 대중남미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동기대비 33% 하락한 46억 달러 기록

■ 신규투자 진출이나 기존투자 확장도 지체

-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남미 현지 경기침체로 우리기업들의 중남미 신규투자 진출이나 기존투자 확장도 지체
-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는 당초 2008년 11월 예정되었던 브라질 자동차 공장 기공식을 무기한 연기

다. 한·중남미 경제관계 전망

■ 2009년 들어 큰 폭의 수출 하락세 기록

- 중남미 경제의 침체는 그간 중남미 경제의 고성장세에 힘입어 크게 증가해왔던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에 커다란 악영향
- 대중남미 수출은 2008년 11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9년 들어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기록
- 2009년 1~5월 대중남미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8% 감소

연구진

권기수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kskwon@kiep.go.kr, Tel: 3460-1081)

권

3. 중동

가. 경제위기 진행 현황

■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판매(오일머니) 감소

- 걸프지역 산유국 경제에서는 석유부문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데,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금년 석유판매수익(오일머니)이 전년대비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 주요 산유국의 경우 석유가 전체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며, GDP 대비 석유판매 수익 비율도 33~55%에 이를 정도로 높음.
- 작년 4분기 이후 세계적 경기불황 여파로 국제유가도 급락하여, 작년 연평균 94.3달러였던 유가(두바이유 기준)가 금년 상반기까지 평균 51.9달러로 45%가 하락하였음.
- 산유국이 생산량도 줄이고 있어 석유판매수익의 대폭적인 감소가 불가피한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OPEC의 석유판매수익은 2008년 9,702억 달러에서 3,833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지원책에 힘입은 금융시장의 부분적 안정세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야기된 중동 금융시장 신용경색에 대응하기 위하여 걸프지역 정부들은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보증, 긴급 유동성 공급, 은행자본금 확충, 모기지 금융기관의 국유화 조치, 국유은행을 통한 자금공급 등을 단행하였음.
- 각국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결과 단기이자율은 하락하였으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대출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며 특히 외국은행으로부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거의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됨.

■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발주 부진 및 프로젝트 취소·지연 속출

- 걸프지역 전체에서 약 2.9조 달러 규모의 건설프로젝트가 진행 혹은 계획 중인데(중동경제전문 주간지 MEED 추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중 상당 부분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음.

- MEED에 따르면 중동 주요 산유국으로 구성된 GCC 지역의 2009년 상반기(1~5월) 신규 발주금액이 약 310억 달러로 전년도 상반기(1~6월) 600억 달러에 비해 48% 감소함.

- 금융경색, 대형 투자자의 이탈, 역내 부동산시장의 급랭 등으로 정부소유 대규모 부동산개발업체들이 프로젝트를 포기하자 이 지역 건설시장 위축을 초래함.
- 발주처들은 건설기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시공업체에 가격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프로젝트 지역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건설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가격 재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지진출 건설사의 수익률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나. 2009년 하반기 경제 전망

■ 큰 폭의 성장을 둔화는 불가피

-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수출 급감과 자산가치 하락, 외국인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IMF(2009. 4)와 세계은행(2009. 6)은 올해 중동지역의 실질GDP 성장률을 각각 2.5%와 1.6%로 하향 전망하였는데, 이는 2008년 성장률 5.9%와 5.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표 22. 중동지역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항목	2008년		2009년	
	IMF	세계은행	IMF	세계은행
성장률	5.9	5.6	2.5	1.6

자료: IMF(2009. 4); 세계은행(2009. 6).

■ 오일머니를 활용한 경기부양책으로 정부 발주·보증 프로젝트는 지속될 전망

- 현지 산유국 정부의 오일머니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경기침체의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00년 이후 중동지역으로 약 2.5조 달러의 오일머니가 유

입되었고, 각국은 국부펀드의 형태로 약 2조 달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추가지출 여력은 충분한 상태임.

- 산유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재정지출을 전년 대비 10~20% 가량 증액하고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을 추진 중임.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경기부양을 위한 SOC 투자 확대로 금년 상반기(1~5월) 발주금액이 1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상반기(1~6월) 55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함.
- 건설 부문의 전반적 위축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공공유틸리티 관련 정부 발주·보조 프로젝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민간투자 주도의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는 거의 중지되었지만, 중장기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전력이나 수자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설비 프로젝트의 경우 국유은행의 자금 지원을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음.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조기 경기 회복 기대감

- 국제유가가 금년 하반기 배럴당 70달러를 상회할 경우 석유 수출 증가에 따른 오일머니 유입으로 중동경제의 조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주요국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조치와 달러가치의 추세적인 하락 효과에 힘입어 2009년 하반기 평균유가는 배럴당 60~70달러 선까지 반등할 것으로 예상
- 국제유가가 70달러 선을 회복할 경우 오일머니를 활용한 산유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내수시장의 구매력 증가에 힘입어 여타 지역에 비해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국제유가의 반등은 현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재개와 민간 건설경기의 회복, 에너지개발 프로젝트의 발주 재개 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한·중동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 여타 주요 경제권에 비해 양호한 수출 및 수주 여건

-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 및 수주 역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여타 주요 시장과 비교할 때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의 2009년 1~5월(누적) 총 수출금액은 1,33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7% 감소하였으나, 대중동 수출은 12.8% 감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작은 폭의 감소세를 기록함.
- 한편 북미, 유럽 등으로의 수출 급감으로 인해 대중동 수출이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6.8%)은 전년에 비해 0.9%포인트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총 해외건설 수주금액(2009년 6월 30일 현재)은 13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9.4% 감소하였으며, 대중동 수주는 80억 달러로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같은 기간 대중동 수주금액이 총 수주액의 61%를 차지할 만큼 우리의 수주실적이 중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수출 및 수주 대상지역으로서 중동시장의 상대적 중요성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

- 중동지역의 풍부한 오일머니와 산유국 정부의 경기부양용 재정지출, 그리고 향후 유가 반등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등을 감안할 때 수출 및 건설·플랜트 수주 대상지역으로서 중동시장의 상대적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연구진

박철형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chpark@kiep.go.kr, Tel: 3460-1092)

4. 중앙아시아

가. 경제위기 진행 현황

■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기침체 심화

- 중앙아시아 1/4분기 경제는 세계경제에 개방성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용경색,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었으나 개방성이 낮은 우즈베키스탄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경제성장을 기록
- 중앙아시아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카자흐스탄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금융 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2.2%)
- 우즈베키스탄은 대러시아 가스 수출가격 인상과 정부 및 해외투자자의 투자활동 증대로 전년 1/4분기와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보임.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대러시아 가스 수출가격 인상으로 1/4분기에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이 밖에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큰 해외노동자의 송금액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의 경기침체로 감소하여 경제성장에 타격을 받음. 그러나 두 국가의 경우, IMF로부터 이미 자금을 지원받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있음.

표 23. 중앙아시아 5국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국 가	2007년	2008년 ¹⁾				2009년
		1/4	반기	3/4	연간	
카자흐	8.9	6.1	5.7	4.0	3.2	-2.2
우즈베크	9.5	8.1	9.3	9.4	9.0	7.9
투르크메	11.6				10.5	-
키르기스	8.5				7.6	0.2
타지	7.8				7.9	3.5

주: 1) 국가별 통계청의 잠정치로 각 분기까지의 누적변화율.

- 세계경기불황으로 인한 원자재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수출 부진이 있었고 이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수입도 동반 하락함.
- 카자흐스탄의 경우, 주요 수출품인 석유가격이 급락하면서 1/4분기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49.2% 급감. 수입은 15.6% 감소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급감함(-77%).

- 우즈베키스탄은 주요 수출품인 대러시아 가스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1/4분기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였으나 수입은 투자 활성화로 10.3%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는 25.5% 감소함.
-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대러시아 가스 수출가격 인상으로 큰 수출 증대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됨.
- 키르기스스탄은 1/4분기 수출과 수입이 각각 12.3%, 18.9% 감소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음. 이는 금을 비롯한 주요광물자원의 수출 감소가 주요원인으로 작용.
- 타지키스탄은 1/4분기 수출은 48.3%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9.9% 감소에 그침. 알루미늄을 비롯한 광물 수출이 부진하였기 때문임.

나. 2009년 하반기 경제 전망

■ 카자흐스탄 경제는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는 성장 둔화 예상.

- 세계경기 회복으로 인한 원자재 수요 확대와 주요 주변국(러시아, 카자흐스탄) 국내경기 회복이 중앙아시아 경제 회복의 열쇠임.
- 카자흐스탄의 금융권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최근 다소 상승한 유가가 유지된다면 경제 저점을 거쳐 2009년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
- 카자흐스탄의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해 신용평가기관들 간에 평가가 다소 엇갈리고 있으나 IMF의 지지를 받는 등 구조조정은 비교적 무난할 것으로 예상
-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가스 수출가격 인하나 또는 수출량 감축이 예상되어 하반기 경제성장은 상반기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EU에 대한 가스 수출가격 하락 및 수요 감소로 자국 내 가스 생산을 줄인 러시아가 두 국가에서의 가스 수입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실제로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서 가스 가격 및 수입량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지난 4월 10일 발생한 대러시아 가스수출관 폭발사고 이후 가스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가스 수출이 중단되고 있음.

- 키르기스 공화국과 타지키스탄은 IMF의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위기에 대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원자재수출 등 세계경제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GDP 중 해외노동자의 송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제 회복 없이는 하반기 중 국내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표 24. 2009년 중앙아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09년 전체 전망		
	Global Insight	EIU	IMF (5.9)
카자흐	-1.6	-0.8	-2.0
우즈벡	4.9	2.5	7.0
투르크메	6.1	-5.0	6.9
키르기스	-5.0	-3.0	0.9
타지	-3.0	-3.0	2.0

자료: Global Insight, EIU는 7월 7일 현재 최신전망 기준, IMF는 Regional Economic Outlook(5월 9일자) 기준.

다. 한·중앙아시아 경제관계 전망

■ 2009년 수출 하락폭은 미미하나 수입 감소폭은 큼.

- 세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수출은 2009년 5월 현재까지 전년동기에 비해 -1.0% 감소하며 미미한 하락폭을 보임.
- 대중양아시아 수출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 사이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2, 3월에는 다시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4, 5월에는 2008년 월평균 대중양아시아 수출액에 근접함.
-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우즈베키스탄(2008년 현재 66%)에 대한 수출 증가(자동차부품 중심)가 여타 국가로의 수출 감소분을 보충하고 있기 때문임.
- 2009년 1~5월 중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국별 수출 증가율은 우즈베키스탄(12%), 카자흐스탄(-32.3%), 키르기스 공화국(-31.7%), 타지키스탄(-10.6%), 투르크메니스탄(158.7%)임.
-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약 159% 증가하며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이사항임.
- 2009년 1~5월 대중양아시아 수입은 크게 감소함(전년동기비 -62%).

- 국별로는 우즈베키스탄(-82.7%), 카자흐스탄(-47.6%), 키르기스 공화국(-83.8%), 타지키스탄(204.4%), 투르크메니스탄(973.9%)
- 타지키스탄의 경우, 주요 수출품인 알루미늄과 및 스크랩에 대한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천연 섬유원료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수입 비중이 작아 전체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함.

- 대중양아시아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대중양아시아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1~5월) 약 37.7% 증가한 약 5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함.

■ 2009년 하반기에도 대 중앙아시아 수출하락폭은 미미하거나 2008년 말 기저효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대중양아시아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며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최대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으로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가 기대됨.
-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부품 수입은 절반 이상이 수출용 자동차 제조를 위해 사용되며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자동차 판매시장인 러시아 시장에서 2008년 12월을 저점으로 판매 회복세와 시장점유율 증가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두 번째로 큰 중앙아시아 교역국인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하반기에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됨.

■ 2009년 대중양아시아 투자는 대폭 감소함.

- 1/4분기 대중양아시아 투자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50% 감소함.
- 이는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가 대폭 감소하였고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도 크게 줄었기 때문임. **KIEP**

연구진

주진홍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joojh@kiep.go.kr, Tel: 3460-1053)